

## 한국무역업계의 FTA 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mpanies' Evaluation of decade-long Korean FTAs and how to improve its for FTA Utilization

배명렬(Myong-Ryeol Bae)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주저자)

박천일(Chun-II Park)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론                  | V. FTA 활용 제고방안 |
| II. FTA 활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  | VI. 결론         |
| III. FTA 평가 및 활용 실태 분석 | 참고문헌           |
| IV.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ABSTRACT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활용에 있어 애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FTA를 활용한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에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 있는 기업들도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실질적 정보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정책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무역업체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였으며, FTA가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주제어 : FTA, FTA 활용도, 무역업계

## I. 서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 개방을 통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GATT,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시장개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개별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됨에 따라 더 이상 다자간 협상 타결만을 기다리고 있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처음으로 칠레와 FTA협상을 개시하여 2002년 12월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동 로드맵에 근거하여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극적인 FTA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ASEAN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는 12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중 10건은 이미 발효하여 48개국과 상호 특혜관세 혜택을 주고 있고 콜롬비아, 캐나다와의 FTA는 서명이 완료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한·중·일, 한·인도네시아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나는 만큼 우리 무역업계가 FTA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FTA 정책에 대해 업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FTA가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보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FTA 규정의 분석이나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집중되었다. FTA관련 분석은 주로 원산지규정 등에 집중되었으며, 경제적 효과분석은 전체산업 또는 특정부문의 산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들 논문들도 모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었다. 물론 기업들의 FTA 활용과 관련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미 발효된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발효된 FT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FTA의 정책방향은 어떠한지

1)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우리나라의 FTA"(<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되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이미 발효된 FTA의 활용 현황 및 활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FTA에 대한 평가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IV장에서는 설문조사 분석내용의 정책적 시사점을, V장에서는 FTA 활용 제고방안을, 마지막으로 VI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FTA 활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내용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양허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FTA 체결은 기업들이 교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저절로 체결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FTA 정책의 성공여부는 기업들이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FTA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1. FTA 특혜관세 활용현황

일반적으로 FTA의 활용은 FTA 특혜관세 활용률(utilization rate)로 측정되며,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가 상품교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일정기간 동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선 이미 수입국에서 무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나 양허제의 품목, 관세인하가 시작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된다.

<표1>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 가운데 일정기간이 경과한 FTA에 한해서 우리나라 수출입품에 부여되는 FTA 특혜관세의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측면에서 본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칠레 FTA와 한-페루 FTA는 높은 반면 나머지는 이보다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가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것은 주요 수입품이 금속제품과 가공광물이고, 이들 품목은 수입액 비중<sup>2)</sup>이 높고 전문 수출입기업에 의해 교

2) 2013년 기준 두 품목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함.

역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sup>3)</sup> 한·페루 FTA의 경우 도 동광 등 금속광물과 광물성연료의 수입비중<sup>4)</sup>이 높고 이들 품목은 전문기업에 의해 수출입되므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1〉 우리나라의 FTA별 활용률(%)<sup>5)</sup>

	FTA명	발효 1년	발효 2년	발효 3년	발효 4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수출	한·칠레 FTA	93.1	95.8	96.7	98.7	97.0	-	75.2	78.8
	한·EFTA FTA	-				-		79.8	80.0
	한·ASEAN FTA	14.0*	14.0*	-	-	28.7	33.1	37.7	38.7
	한·인도 CEPA	-				16.4	35.8	36.2	42.9
	한·EU FTA	-				-	65.7	81.4	80.8
	한·페루 FTA	-				-	61.3	78.0	91.8
	한·미 FTA	-				-		68.9	76.1
	한·터키 FTA	-				-			70.0
	전체	-				-		62.7	66.9
수입	한·칠레 FTA	77.7	93.8	93.6	93.3	94.0	95.8	97.9	98.5
	한·싱가포르 FTA	28.2	31.4	-		-	56.8	-	
	한·EFTA FTA	43.2	41.9	-		-	55.7	61.9	41.4
	한·ASEAN FTA	38.0	49.1	-		58.5	73.8	73.8	75.6
	한·인도 CEPA	-				44.7	53.6	52.7	61.0
	한·EU FTA	-				-	47.1	66.8	67.8
	한·페루 FTA	-				-	52.6	92.0	97.9
	한·미 FTA	-				-		61.0	67.3
	한·터키 FTA	-				-			69.0
전체	-				-		67.0	69.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13 No.18. p.19

주) \*는 추정치

수출 활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FTA 상대국 관세청의 자료협조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입활용률에 비해 활용률 계산이 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 활용률은 주로 관세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국 수출품에 대한 활용률 조사가 무의미하여 통계작성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한·ASEAN과 한·인도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낮은 개방수준과 불합리한 통관 행정 등의 이유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4) 2013년 기준 두 품목의 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함.

5)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제공하는 수출입자료를 기초로 작성해야 하지만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기존문헌에 의존하여 활용현황을 파악

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sup>6)</sup> 한-페루 FTA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 페루 수출품 중 운송장비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비중<sup>7)</sup>이 높고 품목특성상 수출입 전문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특혜관세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2013년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69.0%로 수출 66.9% 보다 높게 나타나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수입과 수출 모두 활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관세를 인하스케줄에 따라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져 활용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특징은 한-미와 한-EU FTA의 경우 다른 FTA와 달리 수입보다는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일수록 특혜관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인도 CEPA<sup>8)</sup> 및 한-ASEAN FTA 등 여타 FTA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높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느 정도의 활용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FTA 활용률은 60~70%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sup>9)</sup> NAFTA의 경우 활용률은 약 64%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up>10)</sup>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의 경우 모두 이 범주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FTA 평가와 활용에 관한 기존 연구

FTA 추진 초기단계의 대부분의 연구과제는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현상은 FTA 체결 건수와 체결 국가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FTA의 경제적 이득 극대화는 기업들이 얼마나 FTA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좀 더 일찍부터 추진되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많지 않았다.

정인교(2009)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인식 및 활용도 조사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FTA 활용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추가적

6)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Focus Vol.13 No.18. p.19

7) 2013년 기준 두 품목의 수출액은 총수출액 중에서 61%를 점유

8)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9)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현황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9 No.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6

10) Cadot et al.(2002)

11)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9, p368

인 FTA 체결보다는 국내 FTA 이행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FTA 활용수준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부실한 관세양허 수준, 소규모 경제와의 FTA 추진, 정보제공의 미흡을 제시하였다.

정재완(2013)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16개의 무역업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원산지규정 및 증빙자료 보관업무의 복잡성 해결, 정확한 원산지정보 및 자료 유통의 원활화, FTA 상대국 소재 바이어 타켓 홍보강화, FTA 협정의 이행관리 적정화를 위한 FTA 협정국과의 협력 강화, FTA관련 전문 인력의 효과적 양성, 중소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유효한 정보제공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재승·정윤세(2013)는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다고 전제하고 FTA활용을 위한 교육 수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FTA 활용전략과 교육·컨설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FTA 활용전략으로는 전문가의 육성,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맞춤형 정보제공,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 해외마케팅 정보의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교육과 컨설팅지원방안으로 교육방향을 수요자·수출·실무·현장 지향적으로 개선,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Kawai & Wignaraja(2009)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주요국가 기업들의 FTA 활용률 수준이 낮은 이유로 정보부족(44.6%), 낮은 특혜관세 수준(25.8%), FTA 특혜관세 활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25.4%), EPZ<sup>12)</sup> 활용이 더 유리(11.1%), 엄격한 원산지 기준(9.5%), 비관세장벽(9.2%), 기업정보 유출 우려(8.3%) 등을 열거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낮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FTA가 단계적으로 특혜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FTA 활용률이 낮은 요인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특혜관세 활용률 추이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FTA의 활용도와와의 비교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12)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 Ⅲ. FTA 평가 및 활용 실태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한·칠레 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FTA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무역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3월 4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 전문기관<sup>13)</sup>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무역업체 12,000개사를 랜덤으로 추출(Random Sampling)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e-mail, 전화, 팩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1,000개 업체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8.3% 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입 유형 등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82.4%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1,000개사 가운데 97.5%를 점유하였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72.9%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입 유형별로 보면 수출중심 기업이 28.8%, 수입 중심 기업이 36.9%, 수출입 모두를 활발하게 하는 기업이 21.5%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87.2%가 수출입에 중사하는 무역기업이었으며, 다만 국내 납품중심 기업은 응답기업의 12.8%에 불과하였다.

〈표 2〉 조사대상 업체의 일반현황

종업원 수	비율(%)	전년도 매출액	비율(%)	수출입 유형	비율(%)
50명 미만	82.4	100억 미만	72.9	수출중심	28.8
50명~299명	15.1	100억~500억미만	19.3	수입중심	36.9
300명~999명	1.8	500억~1000억미만	4.5	수출입 활발	21.5
1,000명이상	0.7	1000억 이상	3.1	국내납품중심	12.8
소계	100	소계	100	소계	100

주) 매출액 구분에 답하지 않은 무응답 업체 2곳 포함

13) (주)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 2. 무역기업의 FTA 활용조사 결과 분석

### 1) FTA에 대한 평가

#### (1) 활용도 및 만족도

업체의 FTA 활용도<sup>14)</sup>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응답 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활용경험이 있는 기업 중 79.2%는 FTA가 기업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여 FTA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FTA를 활용해보지 못한 기업도 39.4%로 나타났다.

〈표 3〉 FTA 활용도 및 만족도

구 분		기업 수	도움(%)	도움 안됨(%)
FTA 활용	전체	1,000 (100%)	54.5	45.5
	활용한적 있음	606 (60.6%)	79.2	20.8
	활용하지 못함	394 (39.4%)	16.5	83.5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729	50.6	49.4
	100억 원 이상	269	65.0	35.0
	무응답	2	50.0	50.0

#### (2) FTA의 기업경영에 대한 기여도

무역업체는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된 이유로는 수출확대와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로 연결을 47.7%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경쟁국 및 경쟁기업에 비해 유리한 거래 환경 조성(20.7%), 현지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15.6%)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인도 등 신흥국과의 FTA 체결(20.7%),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와 FTA 추진이 1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4) 특혜관세 활용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업체가 FTA를 활용한 경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4〉 FTA의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 도움 요인

기업경영에 대한 도움요인	비율(%)	추진전략 중 도움요인	비율(%)
수출확대, 비용절감 연결	47.7	거대경제권과 체결	59.8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	20.7	신흥국과 체결	20.7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15.6	동시다발적 다수국가체결	10.5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	9.7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7.2
기타	6.2	기타	1.8
	100.0		100.0

주) 도움요인 N=545

**(3) FTA별 우리 경제 및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도**

현재 발효 중인 FTA 가운데 우리 경제 및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무역업계는 미국, EU, ASEAN과의 FTA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를 묻는 질문과 복수응답을 통해 1+2+3 순위를 종합해 본 결과 양쪽 모두 순위 변동이 없이 미국, EU,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 순으로 나타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5〉 기발효 FTA 가운데 우리 경제·기업경영의 중요도 순

FTA	1+2+3 순위 복수응답	1순위
미국	79.8	41.0
EU	76.2	28.8
ASEAN	59.5	17.6
인도	21.9	5.6
칠레	17.7	2.2

주) 기발효 FTA 중요도 N=1,000

**2) FTA 활용도에 대한 평가**

**(1) FTA별 활용도**

수출입에서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별 활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EU, 미국,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하고 있는 FTA에 대해 한·EU FTA가 6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한·미 FTA 51.5%, 한·ASEAN FTA 28.5%, 한·인도 CEPA 10.2%, 한·칠레 FTA 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기발효 FTA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미국, EU, ASEAN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활용하고 있는 FTA(복수응답)

FTA	비율(%)
EU	60.4
미국	51.5
ASEAN	28.5
인도	10.2
칠레	8.1

주) FTA 활용 중 N=606

**(2) 기업규모별 활용도**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의 71.7%가, 100억 원 미만 기업의 56.5%가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기업이 FTA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나타내는 실제 활용률을 보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FTA 활용경험 설문조사와 실제 활용률

설문조사 활용도		활용(%)	실제 활용률*		'12년(%)	'13년(%)	
전년도 매출액	전체	60.6	수출	대기업	62.7	66.9	76.9
	100억원 미만	56.5		중소기업			57.3
	100억원 이상	71.7	수입	67.0	69.0		

주\*) 실제 활용률은 관세청 자료('13년 12월)이며, 계산식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출·입액/특혜관세자격 수출·입액'으로 수출액 일부는 추정치 사용

**(3) 특혜관세에 의한 관세인하분의 활용**

무역업계는 FTA 관세인하분의 사용처에 대해 수출의 경우는 바이어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바이어에 귀속(20.3%), 수출 물량 확대에 활용(12.5%),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에 적극 활용(11.2%), 해외 현지의 판매가격 인하(10.4%) 등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그 외에 수입통관까지 직접해 자사 내부 이익으로 활용(6.8%),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3.3%) 등이 있었고, 바이어에게 요구해 수출납품가를 인상한 경우(1.8%)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에는 자사 비용절감에 활용(28.9%)하거나 시장가격에 반영해 고객 마케팅에 적극 활용(24.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내 납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국내 납품처의

요구로 납품가 인하에 활용한다는 답변도 17.8%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의 요구를 수용해 국내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기업은 9.1%, 수입가를 올려주는 기업은 1.3%로 나타났고 본지사간 거래를 주로 하는 3.3%의 기업은 관세혜택 분이 자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FTA 관세 인하 분의 활용

순위	수출관세	비율(%)	수입관세	비율(%)
1	바이어 요청시만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해, 관세혜택은 바이어에 귀속	20.3	자사비용 절감에 활용	28.9
2	수출물량 확대에 활용	12.5	시장가격에 반영해 고객 마케팅에 적극 활용	24.3
3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활용	11.2	국내 납품대상 기업의 요구로 납품 가격인하에 활용	17.8
4	해외 현지 판매가격 인하	10.4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국내 판매가 인하에 활용	9.1
5	수입통관까지 자사가 직접 담당해 자사 내부이익으로 활용	6.9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	3.3
6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	3.3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수입가 인상에 활용	1.3
7	바이어에게 요구해 수출납품가 인상	1.8	-	

주) FTA 관세인하 분 활용 N=606

한편 관세인하 분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관세인하 혜택이 적음(33.8%), 활용절차를 모르거나 관리가 어려움(27.2%),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20.1%)을 꼽았다.

〈표 9〉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내 용	비율(%)
수출입 품목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관세인하 폭이 적음	33.8
FTA 활용 절차를 모르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27.2
수출시 상대국 바이어의 FTA 원산지 증명서 요청이 없거나, 수입시 해외 셀러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주지 않음	20.1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	10.9
FTA 활용을 위한 비용(관리비, 원산지 검증 대응 등)대비 관세인하의 실익이 적음	8.1

주) FTA를 활용하지 못함 N=394

(4) FTA 활용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종합적으로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38.7%), FTA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24.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발급해줘야 할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1.2%)도 애로사항으로 드러났고 사내의 전문 인력 부족(10.8%), 원산지 검증 우려(6.6%)가 뒤를 이었다.

<표 10> FTA관련 애로사항

내 용	비율(%)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38.7
실질적인 정보 부족	24.3
바이어, 셀러의 협조 부족	11.2
전문 인력 부족	10.8
원산지 검증 우려	6.6
기타	8.4

주) FTA 관련 애로사항 N=1,000

특히 업계는 FTA 활용 경험 여부에 따라 애로사항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FTA 활용기업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증명서 규정 및 발급 절차(44.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어서 정보부족(16.5%),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3.9%)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반면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보 부족(36.3%)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어 복잡한 규정 및 절차(29.7%), 사내 전문 인력의 부족(14.0%)을 꼽았다.

<표 11> FTA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순위	FTA 활용기업	비율(%)	FTA 비활용기업	비율(%)
1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44.6	실질적인 정보 부족	36.3
2	실질적인 정보부족	16.5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29.7
3	바이어, 셀러 협조 부족	13.9	전문 인력 부족	14.0
4	원산지 검증 우려	9.6	바이어, 셀러 협조 부족	7.1
5	전문 인력 부족	8.7	원산지 검증 우려	2.0
6	기타	6.8	기타	10.9

주) FTA 활용기업 N=606, FTA 비활용기업 N=394

### 3) 향후 FTA 추진 방향

#### (1) FTA 조기타결 희망 국가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FTA 가운데 조기 타결 희망 1순위 및 1+2+3순위를 집계한 결과 양쪽 모두 순위 변동 없이 한·중 FTA<sup>15)</sup>, 한·중·일 FTA, RCEP, 한·일 FTA, 한·베트남 FTA<sup>16)</sup>, 한·인도네시아 CEPA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업계는 동아시아 역내의 FTA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1, 2, 3위를 차지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모두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어서 중미 5개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GCC<sup>17)</sup>,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표 12〉 조기 타결이 필요한 FTA 응답 결과

순위	FTA 대상국가	1순위(%)	1+2+3순위(%)
1	중국	44.8	64.1
2	한·중·일	17.4	51.8
3	RCEP	11.6	43.8
4	일본	7.6	24.6
5	베트남	5.0	19.8
6	인도네시아	2.9	16.5
7	중미 5개국	2.3	11.2
8	GCC	2.3	11.0
9	러시아	2.0	11.0
10	말레이시아	1.4	6.5

주1)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2) 조기 타결 FTA 순위 N=1,000

#### (2) 조기타결 희망 이유

상기 FTA들의 조기 타결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무역업계는 현재 교역량이 많은 주요 거래 국가, 향후 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의 역내 교역활성화, 자원 확보 등이라 답변하였다.

15) 중국과의 FTA협상은 2014년 11월 10일 타결되었음.

16) 베트남과의 FTA협상은 2014년 12월 10일 타결되었음.

17)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3) 향후 FTA 추진 희망국가

무역업계는 우리가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국가 가운데 CIS,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 및 자원부국과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FTA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대만, 홍콩 등을 FTA 추진 대상으로 꼽은 사례도 있었다.

### (4) 향후 FTA 추진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무역업계가 뽑은 향후 FTA 협상 추진 시 우선 고려사항은 관세의 신속한 인하 및 철폐,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통관 절차 개선, 인증 및 규격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순으로 나타나 수출입 장벽의 실질적 개선과 FTA 활용 확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서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 장치 마련, 다양한 분야의 폭넓고 수준 높은 개방, 현지 투자 진출여건 개선, 현지 서비스시장 개방, 자격증 상호 인정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통한 1+2+3순위 질문에서도 우선순위 변동 없이 1순위 질문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3〉 향후 FTA 협상시 우선적 고려사항

고려 대상 요인	1순위(%)	1+2+3순위(%)
관세인하	41.0	66.7
절차 간소화	20.2	63.0
통관 개선	17.0	62.4
비관세 장벽	8.0	34.4
피해산업 보호	6.3	23.7
수준 높은 개방	3.4	18.9
현지투자 진출	2.4	10.2
서비스 개방	1.2	8.1
자격증 인정	0.5	4.7

주) 향후 FTA 추진 시 우선 고려사항 N=1,000

### (5)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 고려사항에 대해 우리 업계는 FTA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전문 인력 육성,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지원 확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원산지 검증지원,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 및 확인서 관련 협조체계 구축, FTA 컨설팅의 지속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피해대책 확충, 해외 거래처 제공을 위한 외국어 설명자료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표 14〉 무역업계의 FTA 활용 확대 위한 정책

고려 대상 요인	1순위(%)	1+2+3순위(%)
정보제공 확대	30.3	62.9
전문 인력 육성	24.1	41.3
원산지 시스템 지원	15.5	49.5
원산지 검증 지원	9.2	33.1
국내 협력업체 협조	7.7	32.0
컨설팅 지속 확대	5.9	31.0
피해대책 확충	4.2	18.4
해외거래처용 외국어 설명자료	2.5	21.7
기타	0.6	1.4

주) 향후 FTA 활용 확대 위한 정책 N=1,000

## IV.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1. FTA에 대한 평가

#### 1) FTA에 대한 높은 활용도와 만족도

우리 무역업계는 FTA 활용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60.6%로 나타났고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79.2%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특혜관세 활용률('13년 기준)이 수입의 경우 69.0%, 수출이 66.9%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FTA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혜관세 활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극히 일부 FTA를 제외하고는 발효 연차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활용률이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때 수출의 경우 6.7%, 수입의 경우 3.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효 연차가 진행될수록 특혜관세의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되어 특혜관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이는 FTA 특혜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도 일맥상통한다.<sup>18)</sup>

18) 김용태 외,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2013, p60.



그러나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39.4%에 달하고 있어 정보제공을 비롯,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거대경제권과의 FTA 중시

정부의 FTA 추진전략 중 업계에 도움이 되었던 점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인도 등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별 활용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당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국가들 중에 조기타결을 희망하는 국가들 순위에 중국과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것과는 일치한다.

## 2. FTA 활용에 대한 평가

### 1) 마케팅활동에 FTA 활용

무역업계는 특혜관세에 의한 관세인하분의 활용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수출의 경우는 바이어 요청에 의해 관세혜택이 바이어에게 귀속된다는 응답은 1순위(20.3%)였으나, 수출물량 확대, 신규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해외 현지판매가격 인하 등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34.1%로 많은 기업이 수출시장 확대에 특혜관세 인하 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의 경우도 자사비용 절감에 활용(28.9%)한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지만 시장가격에 반영해 고객 마케팅에 적극 활용, 국내 납품대상 기업의 요구로 납품가격인하에 활용, FTA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국내 판매가 인하에 활용한다는 응답률이 51.2%로 대부분의 기업이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 확대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FTA의 특혜관세를 이용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원산지 규정과 정보부족에 의한 애로

무역업계는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및 실질적인 정보부족을 63.0%가 응답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 또한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활용하지 않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실질적인 정보부족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66.0%가 응답해 이 두 가지 문제가 향후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 3. 향후 FTA 추진 방향

#### 1)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에 역점

현재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FTA 가운데 조기타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FTA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역내의 FTA 추진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계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FTA를 조기에 타결해야 하는 이유로 교역량이 많은 주요 거래국가, 전도가 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역내 교역활성화, 자원 확보 등을 응답,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향후 FTA 추진 희망 국가는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으로 CIS,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현지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선호하였다.

#### 2) 무역장벽의 실질적 개선

무역업계는 향후 FTA 협상에 있어서 신속한 관세인하에 가장 관심이 높았고, 그 외는 절차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인증 및 규격 등 비관세 장벽 등 무역장벽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업들은 신속한 관세인하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에 가장 관심이 많았지만 절차 간소화 및 통관개선 등 관세혜택 이외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정보제공과 전문 인력 육성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무역업계는 정보제공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및 원산지시스템 지원과 원산지 검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및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과 상응하는 요망사항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복잡성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업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업계가 친숙한 방법으로 고객지향적인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V. FTA 활용 제고방안

### 1. 원산지규정 및 절차 정비

무역업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협상할 때 우리 산업에 적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품목별로 생산 공정에 있어 우리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적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조차 FTA별로 원산지 규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방식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기인한다.<sup>19)</sup>

그리고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원산지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TPP, 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메가 FTA 추진을 통해 여러 FTA의 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TPP의 경우 참여 12개국<sup>20)</sup> 가운데 10개국과 이미 FTA(8개 FTA<sup>21)</sup>)를 타결한 상태고, RCEP은 15개국 가운데 14개국<sup>22)</sup>과 FTA(6개 FTA<sup>23)</sup>)를 타결한 바 있다. 즉 이는 8개의 원산지 규정과 6개의 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개별적인 FTA에서는 FTA 상대별로 산업의 역학관계와 이해관계가 달라 원산지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트레이드 내비(www.tradenavi.or.kr), 관세청 FTA 포털(yesfta.customs.go.kr), 관세무역개발원(www.custracom) 등을 통해 품목별 원산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이트에서 품목별 HS코드 입력을 통해 원산지 규정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증명은 기준의 확인에서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준수를 위해서는 원산지기준 확인에서 사후검증까지 적어도 6단계<sup>24)</sup>를 공부해야만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서 사후검증까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된다면 인력문제에 시달리

19)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p180

20) TPP(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 12개국 가운데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 FTA를 타결

21) 한·싱가포르, 한·ASEAN,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칠레, 한·페루, 한·캐나다 FTA 등 8개 FTA

22)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FTA 타결

23) 한·싱가포르, 한·ASEAN,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인도, 한·중 FTA 등 6개 FTA

24)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 및 증빙관리, 사후검증대응 등의 연구가 필요(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okfta.kita.net)

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과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결의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이 민관합동으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애로해소, 지역 FTA 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종합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FTA 활용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TA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대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중소기업 등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원산지 지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로펌, 관세법인, 컨설팅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지원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2.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

우리나라 무역업계는 FTA를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고 있던 FTA관련된 실질적인 정보 입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실질적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정보제공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제공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FTA와 관련된 정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제공 주체에 따라서 정보의 양과 질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은 중소기업이 언제나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기보다는 통일된 정보 제공 채널을 만들고 링크시스템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FTA관련 정보는 fta.go.kr과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자신의 고유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들 정보를 기관별로 수집하여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되고 통합된 사이트에서 확실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고 여타의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링크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품목중심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원산지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고 모든 정보를 숙지할 만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제공 체

제는 대부분 제도를 설명하거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제도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연수를 받고 연구를 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정보제공방식은 컨설팅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정보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인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품목이 제한적이고 거래하는 국가도 제한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거래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HS코드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 3.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기업규모별로 볼 때 FTA 활용도는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혜관세의 수출 활용률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난 것<sup>25)</sup>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향후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험이 부족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전파함으로써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CEO대상 교육을 장려하고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직원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FTA에 대한 교육은 지원기관이 일방적으로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진행하는 실적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을 수 있으나 일과 이외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에 찾아가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는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보다는 CEO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이 CEO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CEO에게 편리한 시간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5) 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수출 활용률은 대기업 76.9%, 중소기업 57.3%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FTA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보도자료, 2013.12월)

#### 4. FTA 협상정책의 개선

향후 FTA 협상에 있어 가장 우선 시해야 할 요소로 지적한 것이 신속한 관세인하 및 철폐,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개선, 인증 및 규격 등 비관세 장벽의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기 FTA타결국과의 FTA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하게 되어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73.5%<sup>26)</sup>에 달하고, FTA국과의 교역비중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61.5%(2013년 기준)를 차지하게 된다. 세계 주요 경제국과의 FTA를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향후 추진할 FTA는 우리 기업들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다자간 FTA를 통해 기존에 체결된 FTA의 불리한 내용이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 절차나 검증절차 등 모두 상대방이 있는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게만 유리하게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실정과 상관행을 반영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유럽식, 미국식, 혼합식으로 원산지증명 및 절차를 활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에 적합한 고유한 방식을 확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식으로 원산지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중소기업에 비해 3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 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비교 열위에 놓이게 될 것이고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Bhagwati가 주장하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적인 FTA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스파게티볼 효과의 해소를 위해서도 TPP, RCEP 등 메가 FTA 추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것이 통일원산지 규정의 확보를 위해서 업계의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된 우리나라 FTA에 대해 무역업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26) 2013년 기준(World Bank)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체결되는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산지규정과 관련 유럽형이든 미국형이든 우리나라 기업의 상관습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모형을 확립하고 가능한 그 모형에 따라 원산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TPP, RCEP 등 메가 FTA 추진을 통해 다기화된 원산지 규정을 단일 원산지 규정으로 통합하여 스파게티볼 효과 해소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로 제공되는 원산지 기준 정보를 고도화하여 원산지 기준의 확인부터 사후 검증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현재의 FTA무역 종합지원센터 등의 원산지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FTA관련 정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정보를 통합하고 나머지 기관은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 활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모든 정보를 품목별로 정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CEO대상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FTA 협상에서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익이 협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체결된 FTA라도 다자간 FTA를 통해 우리 업계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에서 FTA를 평가하고 현재의 활용도를 분석함으로써 FTA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계열에 의한 동태적 분석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발효시기가 달라서 FTA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향후 FTA 발효 후 몇 년이라는 기준으로 FTA별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용태 · 정재완,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3.
- 김태인 · 이준건, “FTA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도언정 · 배정환, “수출기업의 대아세안 FTA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 명진호 · 정혜선 · 제현정,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 FTA 10년”, 「Trade Focus」, Vol.13 No.18. 한국무역협회, 2014
- 이경희, “FTA 활용 제고방안”, 「차기정부 정책과제 6」, 현대경제연구원, 2012.
-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9.
- 정재승 · 정윤세,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 정재완,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 「조세연구」, 제13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 조미진 · 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1.
- 최창환, “다양한 형태의 FTA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 관세정보도자료, ‘통계로 보는 한·칠레 FTA발효 10년’(2014. 3. 31.)
- 관세정보도자료 “우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관세정보도자료, 2013.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의 실질적 효과분석 및 활용제고방안」(관세청용역보고서), 2011.
-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관세청 FTA PASS, <http://www.ftapass.or.kr>

- Baldwin, Richard,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545, NBER, 2006
- Bhagwati, J.,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adot, Olivier, Jaime de Melo, Antoni Esteveordal, Akiko Suwa-Eisenmann, Bolormaa Tumurchudur,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Presented at the NAFTA Workshop held in Washington, DC in May 2002, 2002.
- Cheong, I. and J. Cho, "An Empirical Study on the Utilization Ratio of FTAs by Korean Firms", Journal of Korea Trade Vol. 13 No. 2, 2009
- Ju, J. and K. Krishna, "Firm Behaviour and Market Access in a Free Trade Area with Rules of Orig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8, 2005.
- Kawai, Masahiro and Ganeshan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2009.

---

**ABSTRACT****A Study on the Korean Companys' Evaluation of  
decade-long Korean FTA and how to improve its FTA  
Utilization**

Myong-Ryeol Bae\* · Chun-Il Park\*\*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of Korean FTAs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FTAs based on the field survey of more than 1,000 trading firms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trading firms have utilized FTAs more than once and had agreed that the FTAs have contributed to expansion of their business and trade with partners. However, still a number of firms responded that they have never used FTAs. Even those who are utilizing FTAs expressed difficulties in conforming to the complex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processes and lack of practical information on how to use FTAs. Therefore, government policies need to be more focused on elevating FTA utilization rate and meeting the practical use of FTAs by trading firms. In addition, trading firms were found to express preference to potential FTA partners with large economies in the East Asia and were in the opinion that future FTA agreements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that can reflect the practical interest of the firms.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FTA), FTA Utilization, Trade Company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Kyonggi University

\*\* Director, FTA & Regional Studies Depart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IIT), KITA.